	보도자료			GLOBAL TOP 10 CITY
인천광역시	배포일자	2024년 7월 22일(월) 총 3매		세계 10대 도시 인천
담당 농업기술센터 부서 (도시농업과)	담당자 • 치유농업담당 최종호 ☎440-6945 • 담당자 홍예빈 ☎440-6947			
사진(이미지)	□ 없음	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텃밭에서 찾은 웃음, 인천 치매 환자 치유농업프로그램 대성공 - 뇌건강학교와 연계한 8주 과정···참여자 98% 만족, 우울감 등 개선됐다 응답 -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인천광역치매센터 부설 뇌건강학교와 연계해 추진한 '찾아가는 치유농업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뇌건강학교'와 연계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초로기 치매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유지및 향상과 우울감 감소를 위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초로기 치매 : 65세 이전에 증상이 시작되는 치매

2023년 농업기술센터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뇌건강학교'는 초로 기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 및 사회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 1회 총 8회차로 진행됐다. △텃밭작물키우기 △텃 밭식물 채집하기 △토피어리 만들기 △아로마룸스프레이 만들기 △팜 파티하기 등 원예 자원을 활용한 체험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의 눈 높이에 맞게 운영됐다. 프로그램 참여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사후 평가에서는 인지 기능이 향상(9.1%)되고 우울감 감소(60%) 및 스트레스가 감소(14.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 조사 결과 98%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농업이 가진 치유적 효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다양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9월부터 하반기 '찾아가는 치유 농업프로그램'과 실버세대 인지 건강 향상을 위한 '기관 연계 치유 농업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팀(☎032-440-6947)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사진〉

